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황 라 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대학생 취업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1년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58.6%에 불과하였으며, 여학생 취업률(55.1%)은 남학생 취업률(62.2%)에 비해 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1). 더욱이 청년층의 학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를 흡수할 고학력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어, 대학생 취업난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이들의 취업에 대한 중압감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Kim, Y.S., 2009).

주지하듯이 대학 시기는 졸업 이후 진로를 결정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남학생에 비해 더욱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Hwang, 1998; Kang, 2003). 특히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여대생의 경우는 4년제 대학과의 학력 격차와 단기간에 고용시장이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는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2006). 전문대학 간호과의 경우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2011년 기준 취업률 80.1%로 전문대학 전체 평균 6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3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4년제 간호대학생과 경쟁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며 상황이므로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전략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Derogatis, 1982; Lin, Probst & Hsu, 2010).

* 본 연구는 2012년도 수원여자대학 순수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hwangri@swc.ac.kr)

투고일: 2012년 4월 2일 심사완료일: 2012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wang, Rah Il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San 1-6, Omokchen-Dong, Kwonsun-Gu, Suwon, Kyonggi-Do 441-748, Korea.
Tel: +82-31-2908103 Fax: +82-31-290-8142 E-mail: hwangri@swc.ac.kr

더구나 진로 및 취업을 결정하고, 성인으로서 주위 환경으로 받던 지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서 오는 부담감과 함께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정신심리적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hin & Chang, 2003). 간호과 학생의 경우는 타 전공학생에 비해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윤리적 행동 규범, 국가시험 및 취업 준비,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적응 및 환자와의 대인관계 경험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이와 관련된 우울, 불안, 두려움 등 정서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Park, Bae & Jung, 2002; Park, 2011). 특히 우울은 취업과 관련되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심리상태로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Park, 2006). 따라서 간호과 여대생들의 진로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여대생들의 경우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외모나 체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외모를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과 결혼에 중요한 작용 인자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Chun, 2006). 특히 사회적으로 마른 체형이 아름답고 성적 매력이 있으며 파워, 건강, 그리고 현대적 가치 및 자기통제를 함축한다고 전제됨으로써, 주위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체형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Polivy & Herman, 2007). 더구나 여대생들의 마른 체형에 대한 선호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왜곡 현상 즉, 본인 체형을 실제 보다 더 비만한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향과 맞물려 과도한 체중조절, 섭식장애를 야기하며 개인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및 삶의 질 등 정신심리적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Jin, 2007; Kang, 2001, Kang, Kim, Kim & Jung, 2009).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 연구 중 간호과 학생 대상으로 비만도와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Kwon & Kim, 2004), 특히 객관적 비만도 및 주관적 체형 인식이 실질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들을 대상

으로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객관적 및 주관적 비만도, 우울에 따라 취업스트레스는 어떠한지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차별화된 취업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우울 및 비만도 정도를 분석한다.
- 2)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비만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취업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한다.
- 4)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와 충청북도 C시에 소재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과 2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조사 당시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자로서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도구는 황성원(1998)이 코넬대학의 Cornell Medical Index를 참고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표은경(2011)이 여대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며 간호학 박사 4인에게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도구는 성격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으로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표은경의 연구에서는 0.90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77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성격스트레스 0.819, 가족환경스트레스 0.787, 학업스트레스 0.715 학교환경스트레스 0.712, 취업불안스트레스 0.721이었다.

2)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영호 등(1995)이 표준화한 자기보고형 검사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1개 문항으로 각 항목의 점수는 0점에서 3점이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0.880이었다.

3) 비만도

객관적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MI: kg/m^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대한비만학회의 분류에 따라 BMI가 18.5 미만은 저체중군, 18.5에서 23 미만은 정상체중군, 23에서 24.9는 과체중, 25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인 비만도는 대상자가 지각하는 체형인지(BSP, body shape perception)로서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나의 체형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체형인지는 마른편, 보통, 뚱뚱한 편으로 3가지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전공책임 교수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방법 등을 설명한 뒤 협조와 동의를 구하였다.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된 후 학생들을 강의실에 남아있게 하였으며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직접 설명한 뒤 대상자가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완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30분 가량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05, 효과의 중간크기 .15, 검정력 .95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8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341명으로부터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그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응답설문지 22부를 제외한 총 319부의(93.5%)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정도, 체질량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형별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t-검정, ANOVA 및 DUNCAN 다중비교 사후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

N=319

Variable		N	%
Age (21.3±3.4)	18~21	243	76.2
	22~24	48	15.0
	25 <=	28	8.8
Religious	Not have	169	53.0
	Have	150	47.0
Economic Status	High	18	5.7
	Middle	236	74.2
	Low	64	20.1
Living with Family	Yes	286	89.7
	No	33	10.3
Major Satisfaction	Not Good	39	12.3
	Fair	120	37.9
	Good	158	49.8
Level of Job Preparation	High	5	1.6
	Middle	166	52.4
	Low	146	46.1
BMI (20.3±2.4)	Under weight(18.5)	66	20.7
	Normal(18.5~23.0)	214	67.1
	Over weight(23.0~24.9)	26	8.2
	Obese(25<=)	13	4.1
Perceived body shape	Under weight	54	17.0
	Normal	175	55.0
	Obese	89	28.0
Satisfaction of body shape	Not Good	222	69.8
	Fair	74	23.3
	Good	22	6.9
Weight control experience	Have	248	77.7
	Not have	71	22.3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3세(표준편차=±3.4)로 18~21세의 연령군이 243명(76.2%)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종교 상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169명(53.0%), 종교가 있는 경우가 150명(47.0%)으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경제 상태는 중류층이 236명(74.2%)으로 가장 많았고, 하류층도 64명(20.1%)이나 되었으며 상류층은 18명(5.7%)에 불과하였다. 가족동거여부는 가족구성원과 동거하는 경우가 286명(89.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혼자 사는 경우는 33명(10.3%)이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 158명(49.8%)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통 120명

(37.9%), 만족하지 않는 편은 39명(12.3%)이었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취업에 대한 준비정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가 166명(52.4%)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미진한 편도 146명(46.1%)이나 되었으며 잘 되어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5명(1.6%)에 불과하였다.

한편 대상자의 객관적 비만도 체질량지수(BMI)는 정상인 경우가 214명(67.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저체중 66명(20.7%), 과체중 26명(8.2%), 비만 13명(4.1%) 순이었다.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비만도는 정상인 경우가 175명(55.0%), 뚱뚱한 편인 경우가 89명(28.0%), 마른 편인 경우가 54명(17.0%)으로 실제 객관적 비만도 보다 주관적으로 본인을 뚱뚱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Table 2. Job Stress and Depression Level of Subjects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Job stress	53.39	11.51	22	83
personality stress	14.41	4.38	6	30
family environment stress	13.86	4.05	5	23
academic stress	10.46	2.89	4	19
school environment stress	9.46	2.71	4	19
job anxiety stress	5.20	1.98	3	11
Depression	10.18	7.11	0	43
BMI	20.35	2.39	15.8	31.5

Table 3. Correlations of Related Variables With Job Stress

	personality stress	family environment stress	academic stress	school environment stress	job anxiety stress	Depression	BMI
personality stress	1	0.401 (0.000)	0.535 (0.000)	0.303 (0.000)	0.683 (0.000)	0.321 (0.000)	-0.020 0.716
family environment stress		1	0.370 (0.000)	0.290 (0.000)	0.233 (0.000)	0.268 (0.000)	0.037 (0.508)
academic stress			1	0.363 (0.000)	0.336 (0.000)	0.346 (0.000)	0.035 (0.539)
school environment stress				1	0.203 (0.000)	0.155 (0.005)	-0.070 (0.213)
job anxiety stress					1	0.263 (0.000)	0.014 (0.807)
Depression						1	0.076 (0.178)
BMI							1

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불만족인 경우가 222명(69.8%)을 차지하였고, 만족하는 경우는 22명(6.9%)에 불과하였다. 대상자 중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경우는 248명(77.7%)으로 체중조절 경험이 없는 경우 71명(22.3%)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우울 및 비만도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우울 정도 및 객관적 비만도는 <Table 2>과 같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총 평균은 53.39점, 하부 영역별로는 성격스트레스 14.41점, 가족환경스트레스 13.86점, 학업스트레스 10.46점, 학교환경스트레스 9.26점, 취업불안스트레스 5.2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은 평균 10.18점이고 표준편차는 7.11점으로 나타났고, 객관적 비만도는 평균 20.35이고 최대 31.5, 최소 15.8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취업스트레스의 하부영역별 변수, 우울 및 객관적 비만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 및 우울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스트레스와 취업불안스트레스는 순상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683, p=0.000$). 그러나 객관적 비만도인 체질량지수는 취업스트레스 및 우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연령별로는 18~21세군($M=52.49, SD=\pm 11.37$)에 비해 25세 이상군($M=57.93, SD=\pm 12.84$)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638, p=0.027$). 다음으

Table 4. Difference of Job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M±SD		t or F	p	Duncan
Age	18~21	52.49	11.37	3.638	0.027	a
	22~24	55.29	10.75			a, b
	25 <=	57.93	12.84			b
Religious	Not have	53.17	11.59	-0.367	0.714	
	Have	53.64	11.44			
Economic Status	High	46.44	12.49	5.752	0.004	a
	Middle	53.10	11.05			b
	Low	56.44	12.13			b
Living with Family	Yes	52.73	11.39	-3.046	0.003	
	No	59.09	11.09			
Major Satisfaction	Poor	55.05	12.40	2.460	0.087	
	Moderate	54.68	10.73			
	Good	51.92	11.73			
Job Preparation	High	40.60	12.46	4.370	0.013	a
	Middle	52.57	10.69			b
	Low	54.55	12.00			b
BMI	Under weight	53.76	12.93	0.527	0.664	
	Normal	53.05	11.05			
	Over weight	55.85	11.39			
	Obese	52.15	12.15			
Perceived body shape	Under weight	54.20	12.44	1.337	0.264	
	Normal	52.42	11.50			
	Obese	54.71	10.92			
Satisfaction of body shape	Poor	53.77	11.11	0.309	0.734	
	Moderate	52.84	11.36			
	Good	52.27	15.29			
Weight control experience	Have	52.92	11.48	-1.352	0.177	
	Not have	55.01	11.51			

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상류층(M=46.44, SD=±12.49)인 경우 중류층(M=53.10, SD=±11.05)과 하류층(M=56.44, SD=±12.13) 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5.752, p=0.004).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M=52.73, SD=±11.39)가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M=59.09, SD=±11.09) 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3.046, p=0.003). 또한 자신이 지각한 취업준비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취업준비가 잘된 편(M=40.60, SD=±12.46)이라는 응답을 한 대상자는 중간 정도(M=52.57, SD=±10.69) 또는 미진한 편(M=54.55, SD=±12.00)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4.370, p=0.013).

본 연구분석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상태, 전공만족도, 주관적 비만도, 체형만족도 및 체중조

절여부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 요인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요인과 우울 및 객관적 비만도로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값이 0.942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21~1.062로 연구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1의 분석 결과, 연령(p=0.028), 가족동거여부(0.003)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Table 5. Factors Affection Job Stress

N=316

Variables	Model I				Model II			
	B	β	t	p	B	β	t	p
intercept	28.69		4.531	.000	22.83		3.043	.003
age	0.41	0.12	2.203	.028	0.51	0.153	3.048	.003
economic level (High=0, middle, low=1)	6.34	0.13	2.306	.022	8.77	0.177	3.468	.001
Living with Family (yes=0, no=1)	6.12	0.16	2.983	.003	3.79	0.101	1.980	.049
Job Preparation (High=0, middle, low=1)	9.50	0.10	1.865	.063	9.98	0.109	2.145	.033
Depression					0.66	0.408	7.995	.000
BMI					-0.28	-0.058	1.156	.249
Adj R ²	0.068				0.223			
F	6.724				16.103			
				0.000				0.000

동거하지 않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회귀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6.724, p=0.000), 수정계수(R²)는 0.068로 6.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 우울, 객관적 비만도를 포함한 모형2에서는 연령(p=0.003), 경제수준(p=0.001), 가족동거여부(0.049), 취업준비도(0.033) 및 우울(0.000)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취업준비도가 낮은 경우 및 우울 점수가 높은 경우 취업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F=16.103, p=0.000), 수정계수(R²)는 0.223으로 22.3%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변수들 중 우울($\beta=0.408$)이 취업스트레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지속적 경기불황과 불안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심화되는 청년 취업 문제는 대학생의 주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며, 이러한 냉혹한 취업 경쟁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는 신체화 증상, 강박증세,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불안경향성 등 정신건강문제와(Lee, Kim & Park, 2000), 자살충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Kim & Cho, 2009; Lim, 2010). 간호과 학생의 경우 비교적 높은 취업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취업여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타과에 비해 낮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나,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의 경우 4년제 보다 단기간에 전공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고된 교육과정 속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차별화된 취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병원이 없는 가운데 4년제 간호과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들 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높을 것이라 우려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수준과 이에 영향 요인을 실질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3세(SD=±3.4)이며,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7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가운데 하류층도 20.1%를 차지하였고, 대상자의 89.7%는 가족구성원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47.0%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대상자의 과반수 정도(49.8%)는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준비도는 '중간 정도'와 '미진한 편'이 9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상자가 취업준비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는 의료기관 취업에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준비가 졸업반 학생에 집중되는 간호과 교육과정 특성상 간호과 2학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

다. 향후 간호과 학생의 취업준비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Kang(2010)이 주장한대로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취업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실질적 개발이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객관적 비만도(BMI)는 정상인 경우가 67.2%, 저체중 20.7%, 과체중 이상이 12.3%를 차지하는 가운데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체형은 정상 55.0%, 뚱뚱한 편 28.0%, 마른 편 17.0%로 실제 비만도 보다 뚱뚱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대상자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인 경우가 69.8%를 차지하며, 체중조절의 경험에 있는 학생도 7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실제체형 보다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표준체중이나 저체중인 학생까지도 주관적으로 왜곡된 체형 인식이 있다는 선행연구(Chun, 2006; Kim, M. O., 2009; You & Im, 1997)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처럼 자신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무리한 체중조절을 비롯하여 거식증, 폭식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올바른 체형 인식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주도할 미래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양성 중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비만과 올바른 체형인지에 대한 보다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평균은 53.39점으로 Pyo(2009)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49.26점 보다 높았으며, 취업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에서는 가족환경스트레스(13.86점)와 학교환경스트레스(7.95점)가 타 영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Pyo(2009)의 연구 대상이 대학교 1~4학년 학생 전체를 포함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취업 문턱에 근접한 전문대학 2학년 학생으로 국한되어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보다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4년제 여대생 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이 많고, 학생 스스로가 지각하는 학력 격차, 진로장벽이 심하다는 기존 연구(Kim, 2003)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교육연한 및 교육 목표에 차이가 있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이 4년제 간호과 학생과 졸업 후 동일한 면허증과 취업요건을 준비해야 상황하므로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비교적 높은 취업률이 보장된 간호과 학생이라 할지라도 타과와 마찬가지로 상당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가족환경스트레스와 학교환경스트레스가 타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이들 전문대학 간호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 강화와 학교 자체 내 취업 친화적 환경 구축을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하부 영역과 우울, 객관적 비만도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취업스트레스 하부 영역과 우울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만도는 취업스트레스 및 우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경우 평균 10.18점으로 정상 범위 0~9점에서 경미하게 벗어난 경증의 우울 상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생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교육과정 및 실습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며, 우울은 취업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Cho, 2009; Park, 2006). 한편 여대생의 경우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로 인해 부정적 신체상의 지각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Gavin, Simon & Ludman, 2010; Park, Lee & Park, 2007)와는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 비만도는 우울과 취업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학과 일개 학년 학생에 국한된 연구대상자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되며, 향후 여대생 대상자수를 확대 표집하여 체중군별로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들 체중군별 비만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추가적 연구를 제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별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경제수준, 가족동거여부, 취업준비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취

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높은 취업률과 전문직업능력 함양 등 다양한 이유로 간호과에 진학하는 만학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간호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연령을 선발 요건에 포함하고 있는 취업 분위기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중' 또는 '하'인 경우가 '상'인 경우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수준별 취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Park과 Park(2005)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연구한 Hwang(1998)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취업에 대한 부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요인을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취업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가족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가족과 동거하는 학생 보다는 혼자 독립하여 생활을 하는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혼자 사는 학생의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더욱이 취업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가족환경스트레스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취업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취업준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재학 중 취업준비에 몰입한 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 계획과 더불어 구직활동도 비교적 일찍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수준 및 취업률이 높았다는 Chang, Shin과 Lee(2007)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비만도와 체형에 대한 인지는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층도구상의 한계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주관적 비만도 및 체형인지 도구의 보완을 통해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제시되었으며, 그 외 연령, 경제수준, 가족동거여부 등 이들 변수가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총 22.3%의 설명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졸업반 학생의 우울은 취업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써 취업스트레스 악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Park, 2006; Shin & Chang, 2003)와 동일한 맥락이며, 향후 취업스트레스에 따른 우울 관리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예측한 가정과는 달리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만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간호과 취업의 수월성과 전문기술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추후 타계열을 포함한 전문대학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비만도가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간호과 일개 학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상당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의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성별 격차, 학력 격차 및 전공 특성 등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취업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 연구를 제언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맞춤형 취업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개발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자신의 체형을 실제 보다 과체중으로 인지하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주요인으로 우울, 연령, 경제수준, 가족동거여부 등이 제시됨으로써 전문대학 간호과 여대생 중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우울 관리프로그램과 함께 학력차, 성별차, 전공특성 등 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취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간호과 이외 전문대학 타과로 전공계열을 확대하여 비만도와 취업스트레스의 연구를 규명하는 반복연구 수행과 함께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관련되는 다각적 요인을 규명하는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Chang, J. Y., Shin, H. C., Lee, J. Y.(2007). The Effect of Commitment toward College Major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mong College Graduate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4), 415-435.
- Cho, H. S.(2009).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12(1), 3-14.
- Chun, Y. S.(2006). *Influences of women college student's body image and weight management on obesity stress*.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Derogatis, L. R.(1982), *Self-reprot measures of stres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 Ed by Goldberger L, Berznitz S, New York, The Free Press, 270-294.
- Gavin, A. R. Simon, G. E, Ludman, E. J.(2010). The association between obesity, depression,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women: the mediating role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6), 573-81.
- Hwang, S. W.(1998).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 Master's thesis, Dang-A University . Pusan.
- Jin, E. H.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 Perception of Body Imag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1(1), 67 - 74.
- Kang, B. M..(2003). *The causes of social stress and way of coping with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ungook univerisity, Seoul.
- Kang J. S., Kim Y. Y, Kim M. Y., Jung D. Y.(2009). A Study on Body Attitude, Body Mass Index, and Perceived Stress among Women'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2), 296-305.
- Kang, K. H.(2010).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Employment Stres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Pusan.
- Kang, S. R.(2001). *A Study on the Relational Factors of Body Image and Self Respect of College Women*.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 Kim, K. T.(2003). *Trait anxiety and irrational beliefs impact o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mparison of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and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Jeonju.
- Kim, M. J., Cho, G. H. (2009).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related Economic Stress and Caree Attitude Maturity on Hopelessness and Mental Health in Korean Youth.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4), 47-62.
- Kim, M. O.(2009). "2 hit one person in Daegu college recognized by his obesity" *HanKookIlbo*: Retrieved February 4, 2009 from <http://news.hankooki.com/1page/society/200909/h2009090303034374990.htm>
- Kim, Y. S.(2009). Youth employment one year new 112 thousand people ↓. *The Jungang Daily*, Retrieved August 15, 2009 from joinsmsn.incruit.com/news/jobnews_content.asp?jno=3727317.
- Kwon, S. J., Kim, E. H.(2004). A study on the body mass index and psychosocial

- factor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Hygienic Sciences*, 10(1), 1-7.
- Lee, H. K, Kim, I. K., Park, Y. C.(2000). The Psychological Effect Of Economic Depression On The 20`s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 6(2), 87-101.
- Lim, B.,K.(2010).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Stress and Self-Efficacy on Suicidal Ideation*.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Daejeon.
- Lin, H. S, Probst, J. C, Hsu, Y. C.(2010). Depression among female psychiatric nurses in southern Taiwan: main and moderating effects of job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Jouranl of Clinical Nursing*, 19(15-16), 2342-54.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1). College information in August Disclosure, 35 items, such as employment status and scholarships open. Press release (2011 Aug, 24)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The information servic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Retrieved May 10, 2012 fro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web site. <http://www.academyinfo.go.kr/search/indexGuideSearch/indexGuideSearchRD.jsp>
- Park, H. S, Bae, Y. J, Jung, S. Y.(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 Park, K. R, Park, H. R. (2005).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in Senior-year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9(2), 328-338.
- Park, K. R(2006). *Employment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Senior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Park, B. N., Lee, H. J., Park, J. S.(2007). The Effects of Health Management Program on BMI, Obesity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32(2), 1~12
- Park, J. Y.(2011). Stress, Stress re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Namwon.
- Polivy, J., Herman, P.(2007). Is the body the self? Women and body image. *Collegium Antropologicum*, 31(1), 63-7.
- Pyo, E. K.(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 seeking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female college student's way of coping with stress*.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 Shin, H. G., Chang, J. Y.(2003).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ender,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enio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815-827.
- You, S. O., Im, E. S.(1997). A study on Body Weight and Health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1(2), 83-93.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Hwangri Rah II(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Assistant Professor)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stres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and body mass index (BMI)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Methods:** Subjects included 319 students at two colleges in Kyonggi and Chungbuk province, who were asked to complete a survey questionnair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Result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n average value of 53.39 for the total employment stress scale, and both values for familial environmental stress and school environmental stress were relatively higher among subscales of employment stress. The average score on the depression scale was 10.18 indicating slightly high, and BMI was 20.35 with an obesity fraction of 12.3%.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y suffered from much stronger employment stress according to their severity of depression. Overall factors that affect employment stress included depression, age, economic status, and whether family members live together or not. However, BMI had no significant statistical effect on employment stress.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measure and control their employment stress and depression, because employment stress is clos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Key words :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Body Mass Index (BMI)